



보험금 원가변동과 자동차 보험료 조정

전용식 연구위원, 김유미 연구원

- 자동차 보험료가 하락하고 있지만 보험금 원가로 생각할 수 있는 진료비, 자동차 수리비 등은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어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는 심화될 수 있음
 - 2018년 상반기 한방진료비, 외래진료비, 자동차 수리비는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빠르게 증가하지만 소비자물가지수 품목 중 자동차 보험료 지수는 1.29% 하락함
 - 손해율은 자동차 보험료에 대한 지급 보험금의 비율로 정의되는데, 보험금 원가 상승은 사고 1건에 대해 지급하는 보험금을 증가시키고 보험회사의 수입인 자동차 보험료가 하락할 경우 손해율은 상승함

- 보험금 원가 상승이 자동차 보험료에 제한적으로 반영될 경우 자동차보험 경영성과는 악화될 수 있음
 - 보험금 원가 상승, 혹은 사고 건수 증가로 인한 지급 보험금(발생손해액) 증가가 발생(손해율 상승)한 후 자동차 보험료가 그에 상응하게 조정되어야 손해율과 보험회사의 경영성과가 안정됨
 - 유럽 주요국을 비교한 결과, 보험금 원가 상승이 자동차 보험료에 반영되는 폭이 적은 국가의 자동차 보험 경영성과는 상대적으로 좋지 않음

- 자동차보험 경영성과 악화는 손해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과 민원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1984년부터 손해율이 악화되었던 이탈리아의 경우 80년대 후반 손해보험회사들의 파산이 있었고 이로 인해 자동차 보험료가 급격히 상승했던 경험이 있음
 - 한국소비자원(2017)은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상승하면 일부 보험회사들은 손해율 관리를 위해 계약인수 조건을 강화할 수 있어 민원 발생 건수가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함

- 보험금 원가 상승요인이 자동차 보험료에 적시에 반영되지 못할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안정될 수 있지만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악화와 소비자와의 갈등 확대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자동차 보험료가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보험료 인상은 최소화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배상 및 보상제도 개선을 통한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 억제가 선행되어야 함
 -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경우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경상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 강화로 보험료가 하락하고 자동차보험 경영성과가 개선됨

1. 검토배경



- 2017년 266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던 자동차보험은 2018년 상반기 116억 원 적자로 전환됨
 - 2016년 4월부터 개정된 렌트비 지급기준이 적용되었고 경미사고 수리기준 등 대물배상 제도 개선으로 2017년 영업이익은 19년 만에 흑자를 기록함
- 2017년 보험영업이익 흑자로 인해 보험회사들은 보험료를 경쟁적으로 인하하였고 이로 인해 손해율이 상승함
 - 대형 3사는 2016년 12월 31일, 2017년 8월 6일과 16일, 2017년 6월 1일 최소 0.8%에서 최대 2.7% 보험료를 인하함
 - 2018년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1.7%로 전년동기 대비 3.9%p 상승하였고, 소비자물가지수 품목의 자동차 보험료 지수 기준으로 2017년 0.07% 상승하였으나 2018년 상반기 1.29% 하락함
- 자동차 보험료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보험금 원가로 생각할 수 있는 진료비, 자동차 수리비 등은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어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폭은 확대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보험금 원가 상승, 혹은 사고 건수 증가로 인한 지급 보험금(발생손해액) 증가가 발생(손해율 상승)한 후 자동차 보험료가 그에 상응하게 조정되어야 손해율과 보험회사의 경영성과가 안정됨
 - 2019년에도 자동차보험 원가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표 1〉 자동차보험 원가 상승 요인

구분		개요
대인	합의금	일용임금 상승으로 인한 휴업손해, 상실수익, 간병비 증가
	진료비	진료수가 인상, 2, 3인실 입원료 증가
	한방진료	한방 병/의원 진료비 비중 상승세 지속 (한방 진료 비중 2016년 28.5% → 2017년 33.5% 상승)
대물	부품비	평균 부품가격 상승 (국산차 평균 부품가격 증감률 2016년 2.9% → 2017년 3.3%)
	공임비	평균 공임비 증감 2016년 0.6% → 2017년 3.2%

- 본고에서는 자동차보험 보험금 원가상승으로 인한 손해율 상승과 이에 대한 보험료 조정 현황, 조정 지연의 부정적인 영향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제시함

2. 손해율과 자동차 보험료



가. 국내 현황

■ 자동차보험 보험금 원가와 손해율 상승, 보험영업이익 적자 확대에도 소비자물가지수의 품목인 자동차 보험료 지수 상승폭은 제한적임

- 2014년 손해율이 88.4%를 기록하고 보험영업이익 적자가 1조 1,009억 원을 기록해도 2014년과 2015년 자동차 보험료 지수 상승률은 0%를 기록함
- 2016년에 2014년과 2015년의 경영실적과 손해율을 반영하여 자동차 보험료 지수는 2.43% 상승함
 - 2013년부터 입원진료비, 한방진료비, 외래진료비 등은 매년 상승세를 지속하였고 자동차 수리비는 상승폭이 확대됨
- 2016년 자동차 보험료 인상과 대물배상 제도 개선의 영향으로 2017년 손해율은 80.9%로 전년에 비해 개선되었으나 2017년 보험료 인하로 그 효과가 소멸되면서 2018년 상반기 손해율은 상승하였고 자동차 보험 보험영업이익은 적자로 전환됨
 - 2018년 상반기 손해율은 81.7%로 2017년 상반기 77.8%에 비해 3.9%p 상승함

〈표 2〉 자동차 보험료와 보험금 원가 상승률, 자동차보험 경영성과

(단위: %, 억 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상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	1.30	1.27	0.71	0.97	1.90	1.12
입원진료비 지수	1.78	1.35	1.09	1.50	1.55	0.32
한방진료비 지수	2.70	2.73	2.50	2.20	3.00	2.89
외래진료비 지수	1.03	1.88	2.01	2.30	2.60	2.50
자동차 수리비 지수	-0.03	0.47	0.26	0.58	0.73	1.78
자동차 보험료 지수	-0.68	0.00	0.00	2.43	0.07	-1.29
자동차보험 손해율	87.9	88.4	87.6	83.0	80.9	81.7
자동차보험 보험영업이익	-7,962	-11,009	-10,868	-3,418	266	-116

주: 자동차 보험료, 입원진료비, 한방진료비, 외래진료비, 자동차 수리비 등은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된 품목 기준임
 자료: 한국은행; 보험개발원; 금융감독원

■ 손해율과 자동차 보험료 상승률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과거 1년간 손해율 상승폭의 20% 내외가 보험료에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남

- 2013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며 1993년부터 2011년까지 자료를 분석한 전용식 외(2013)의 연구 결과와 유사함¹⁾

나. 유럽 주요국과의 비교

- 유럽 주요국의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동차 보험료는 보험금 원가 상승, 즉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임

-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자동차 보험료가 하락한 국가는 우리나라와 이탈리아인데, 이탈리아는 경상환자 보험금 지급기준 강화로 발생손해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임²⁾(〈표 3〉 참조)

-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자동차 보험료에 반영되는 폭이 적을 경우 자동차 보험의 경영성과는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 자동차 보험료 상승률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차감한 실질 자동차 보험료 상승률은 우리나라가 -1.33%인데 합산비율은 106.08%로 자동차보험 경영성과가 가장 좋지 않음
- 자동차 보험료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우리나라, 프랑스, 독일의 손해보험 자동차보험 합산비율은 100%를 초과하고 있음

〈표 3〉 우리나라와 주요국 자동차 보험료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합산비율

(단위: %)

구분	자동차 보험료 상승률(A)	소비자물가 상승률(B)	실질 자동차 보험료 상승률(A-B)	합산비율
한국	-0.04	1.29	-1.33	106.0
프랑스	0.68	0.71	-0.03	103.1
이탈리아	-0.04	0.89	-0.93	92.5
영국	3.22	1.54	1.68	102.2
스페인	1.04	0.60	0.44	98.4
독일	0.72	1.03	-0.31	100.1

주: 합산비율은 손해율과 사업비율(사업비/보험료)을 합한 비율로 100% 이상일 경우 경영성과가 악화됨을 의미함
 자료: 이탈리아 보험협회; 금융감독원

- 1) 손해율 상승에 대한 보험료의 반응을 책임보험, 임의보험 등 담보별로 1993년부터 2011년 11월까지 자료를 분석한 전용식 외(2013)의 연구결과도 2000년 이후 손해율을 보험료에 반영하는 크기가 이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자세한 내용은 전용식 외(2013), 「자동차보험시장의 가격경쟁이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험연구원 참조
- 2) 전용식(2018. 8. 28), 「이탈리아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누수 관리 정책효과」, 『KIRI 리포트』, 이슈분석 참조

3.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의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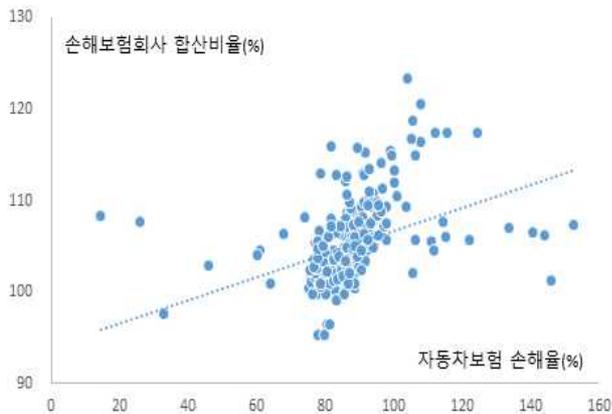


- 보험금 원가 상승 반영이 제한적일 경우 자동차보험 경영성과는 악화될 수 있고 이는 손해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악화와 민원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1984년부터 합산비율이 110%를 초과했던 이탈리아의 경우 80년대 후반 손해보험회사들의 파산이 있었고 이로 인해 자동차 보험료가 급격히 상승했던 경험이 있음³⁾
 - 한국소비자원(2017)은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상승하면 일부 보험회사는 계약인수 조건을 강화할 수 있어 민원 발생 건수가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함⁴⁾

가. 손해보험회사의 건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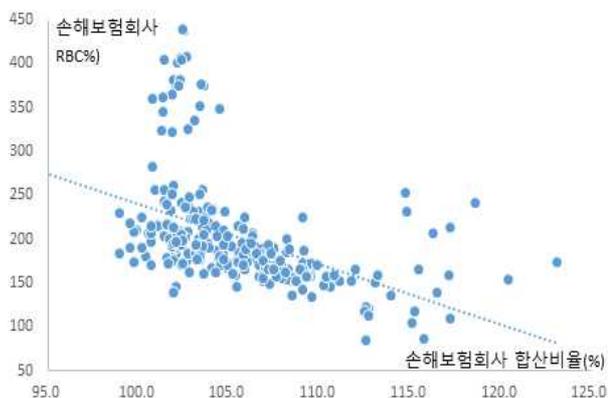
- 손해보험회사의 전체 합산비율은 자동차보험 손해율과 역의 관계를 보이고 손해보험회사의 합산비율 상승(경영성과 악화)은 지급여력비율(RBC)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
 - 2012년 1/4분기에서 2018년 2/4분기까지 11개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 합산비율 상승은 영업이익이 악화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영업이익 악화는 가용자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그림 1〉 자동차보험 손해율과 손해보험회사 합산비율



자료: 금융감독원

〈그림 2〉 손해보험회사 합산비율과 RBC



자료: 금융감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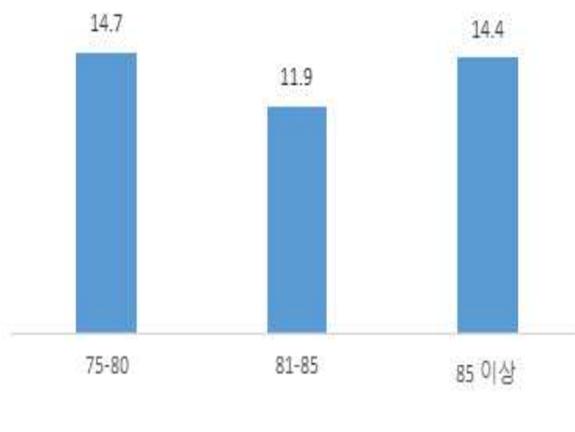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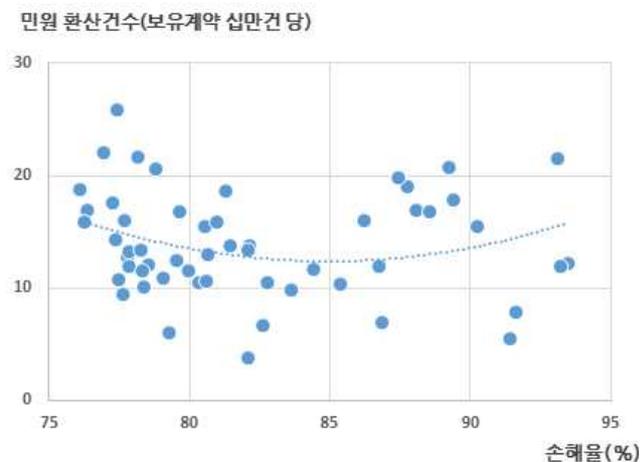
3) Heiks(2006), "The Pricing Effects of European Union Insurance Liberalization on Italian Motor Insurance", Honors Projects, Illinois Wesleyan University
 4) 한국소비자원(2017. 11),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나. 자동차보험 민원

■ 손해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조정이 어려울 경우 일부 보험회사는 손해율 관리를 위해 인수(Underwriting)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민원이 증가할 수 있음

- 2017년 1/4분기부터 2018년 2/4분기까지 9개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계약 10만 건당 민원 건수는 2017년 1/4분기 평균 13.9건에서 2018년 2/4분기 평균 12.8건으로 줄어들고 있음
- 9개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계약 10만 건당 민원 건수와 손해율을 분석한 결과, 손해율이 85% 이상 구간에서 보유계약 10만 건당 자동차보험 민원 건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그림 3〉 자동차보험 손해율과 보유계약 10만 건당 민원 〈그림 4〉 손해율 구간별 보유계약 10만 건당 민원



4. 요약

■ 국내 자동차 보험료는 보험금 원가 상승으로 인한 손해율 상승을 제한적으로 반영하고 있음

- 보험금 원가 상승 반영 폭이 적기 때문에 지급보험금 증가율보다 보험료 상승률이 낮아 손해율이 상승하고 손해보험회사의 영업이익은 악화될 수 있음
 - 손해율이 상승해도 사업비 절감으로 영업이익을 관리할 수 있지만 사업비 절감 등 비용절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음

- 보험금 원가 상승요인이 자동차 보험료에 제한적으로 반영될 경우, 소비자물가 안정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약화와 소비자와의 갈등 확대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소비자물가지수에 자동차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료의 변동은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침
 - 80년대 후반 손해를 악화 지속으로 인한 손해보험회사들의 파산이 있었던 이탈리아의 경우 자동차 보험료가 급격히 상승했던 경험이 있음
- 자동차 보험료가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보험료 인상은 최소화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배상 및 보상제도 개선을 통한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 억제가 선행되어야 함
 -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경우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경상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 강화로 보험료가 하락하고 자동차보험 합산비율이 개선됨⁵⁾
 - 스페인의 경우 2016년 경상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엄격히 규제하는 제도 개선으로 2017년 합산비율은 95%로 2016년 98.5%에 비해 하락, 경영성과가 개선되었고 자동차 보험료는 0.8% 상승에 그침⁶⁾

kiri

5) 이탈리아 사례는 전용식(2018. 8. 28), 「이탈리아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누수 관리 정책효과」, 『KIRI 리포트』, 이슈분석 참조
 6) 보험연구원(2018. 10. 4),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참조